

MD 서양화가 그레이스 김씨 산타페에서 개인전

극사실주의 묘사로 작년 최고 정물화상



메릴랜드에 거주하는 서양화가 그레이스 김(사진·어퍼달보로)씨가 오는 19일

에 작품의 초점을 맞춘다"며 "삶, 그리고 단순한 듯 함이 복잡한 이 세상의 아름다움에 대한 애정과 감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88년 홍익대에서 건축학을 전공한 김씨는 70년 도미, 50세 때 커

뮤니티 갤러지를 다니며 페인팅을 시작했다. 이후 토레도 아트 리크, 솔러 스쿨 오브 파인아트에서 공부했으며 국립미술관에서 작품을 모사하며 실력을 키웠다. 전시회는 다음달 2일까지 산타페 마니토 갤러리에서 열린다. 오프닝 리셉션은 19일(금) 오후 5시. >문의: 505-986-0440 >웹사이트: ManitouGalleries.com

유승림 기자

부터 뉴멕시코주 산타페에서 다섯번째 개인전을 갖는다. 산타페에서는 두 번째 전시회다.

수퍼리얼리즘을 추구하는 김씨의 작품은 카메라의 눈으로 찍어낸 듯한 극사실주의적 묘사로 유명하다. 그의 작품 '감(Persimmon)'은 지난 2006년 국제사실주의 대회에서 최고 정물화상을 수상했으며, 아티스트 매거진 12월호 표지에 게재되면서 동시에 '2006년 최고의 작품'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김씨는 이번 전시회에서 약 20점의 근작을 선보일 예정이다.

그는 "장문 밖으로 보이는 풍경과 같은 자연의 무한한 아름다움



'Calla Lily Morning' (20" x 16" · Oil on Linen)

세계 초소형 광대역 안테나 개발

VA텍 박사과정 양태영씨

버지니아텍에서 전자공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한인 유학생 양태영(사진)씨가 세계에서 가장 작은 초광대역 안테나(compact ultra-wideband antenna-CUA) 개발에 성공했다. 성능의 저하가 없는, 이론적 한계에 근접한 초소형 안테나다.

양씨는 16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초소형 안테나를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그 크기에 비해 얼마나 넓은 주파수 영역을 쓸 수 있느냐, 또 신호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주고 받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면서 "지금까지는 크기와 효율, 주파수라는 세가지 조건을 이

론적 한계치에 가깝게 모두 충족시키는 초 광대역 안테나가 없었다"고 말했다.

즉 한가지는 충족시키면 나머지 두 가지 중 하나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양씨가 개발한 이 CUA는 10:1 이상의 주파수 대역폭을 사용할 수 있고, 95% 이상의 효율을 보이며 전대역에 걸쳐 균일한 송수신 성능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씨는 "고용량의 데이터를 원활하게 주고 받을 수 있는 CUA는 특히 의료나 군사장비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면서 그 예로 유방암 등 인체 검사시 CUA가 발산하는 전파신호가 인체내로 더욱 잘 침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유방암의 위치를 정확하게 예측하거나 고화질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군사적으로는 적진 탐사시 사용되는 소형 무인비행기 등에 장착해 광대역에 걸쳐 적의 무선 송수신을 감청하는데 쓰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무선으로



디지털 캡 코더에 저장된 데이터를 컴퓨터로 전송하거나, DVD 영상을 HDTV로

송출시키는 것도 가능해진다.

양씨는 지난달 시카고에서 열린 2008 국제무선학회 학회에서 성능의 손실없이 이론적인 크기의 한계치에 가장 근접한 CUA를 만들 수 있는 이론과 그 적용 예를 발표해 전장 및 전자 분야에서 최고 논문상을 받아 주목을 받았다. 또한 지난 4월에는 버지니아텍 공대내 우수 박사논문경진대회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양씨는 "이론적 성능과 크기 한계에 근접한 초광대역 안테나 설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 이를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유승림 기자

밤늦으로 잘 들리는 워싱턴미주방송

Washington Korean Broadcasting Co.

703-354-4900 fax 703-658-1500

1400-K Little River Trac., Annandale, VA 22003

사장: 박용환

골프 룰 한치 오차없이... '골사모' 첫 대회

내달 18일 두번째 시험

정확한 룰에 따라 정직하게 골프를 치자는 취지로 결성된 '골사모(정직한 골프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회장 이운중 프로)'가 13일 스탠포드 소재 어거스틴 골프장에서 제1회 시험을 가졌다.

6일 진행될 예정이었던 제1회 골사모 골프대회는 주말 폭우로 인하여 연기돼 진행됐다.

정원 52명으로 시작된 경기는 샷 건방식이 아닌 티타임 방식(골프장 예약시스템)으로 13개조를 8분 간격으로 배정해 오전11시부터 진행됐다.

티칭프로와 오랜 골프 구력의 선수들로 구성된 핸디캡위원회(7명)는 핸디캡 18 정도를 기준으로 각

선수들의 핸디캡을 계산해 시험에 적용했다.

이날 시험의 각 순위는 총점성적인 그로스 순위로 1위 제임스 김(78타), 2위 김옥산(79타), 3위 정구태(80타) 선수가 차지했고, 넷(Net) 순위로는 1위 김민석(68), 2위 안대봉(68), 3위 김원(69)선수가 차지해 각 순위별 500달러, 300달러, 200달러의 상금을 전달했다.

특히 이번 경기에는 스트로크 플레이의 경우, 홀이 이미 끝났어도 경기 도중에 연습할 수 없고, 뒷사람의 퍼팅을 위해 볼을 옮길때 볼을 반드시 마크하고 마커로 움직였다 다시 마커된 위치로 돌아온 다음 볼을 놓고 플레이하는 룰이 정확하게 지켜졌다.

이동철 프로는 "어떤 선수는 홀 2피트 앞에서 평상시 습관대로 공을 손으로 잡아 벌점을 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체로 모든 선수들이 룰에 신경을 많이 쓰면서 경기에 임해 룰다운 룰을 배워나갔다"며 "첫게임 치고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다음달 18일(토) 2번째 모임을 예정하고 있는 골사모는 경기 시작일 최소 3일전에는 접수를 마감할 예정이라며 참가를 원하는 선수들은 조기에 접수해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달라고 부탁했다.

>제2회 모임일정: 18일(토) 오전11시 티타임 진행
>장소: 미정
>문의: 703-994-9118 (이운중 프로)
황지형 기자

콘도·타운하우스를 반값에 27일 페어팩스 주택 세미나

콘도나 타운 하우스 등을 시가의 50% 이하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페어팩스 카운티 '퍼스트 홈바이어 프로그램(First Time Home Buyer's Program)' 세미나가 오는 27일 애난데일에서 열린다.

'퍼스트...'는 주민들이 카운티 정부가 소유한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자격 조건은 연소득이 2만5000달러 이상,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하며, 최근 3년간

미국에서 주택을 소유했던 기록이 없어야 한다. 또한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미나에 참석해 일정 교육을 받은 후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주택국이 발급하는 수수료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따라서 2006년 이전 수수료자는 다시 한번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번 세미나는 카운티 주택청 영혼씨 주관으로 27일(토)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애난데일 벅크오브 아메리카 본사 10층 회의실에서 열

(가족수 당 소득제한)

가족수	연소득
1	\$46,300
2	\$52,900
3	\$59,550
4	\$66,150
5	\$71,450
6	\$76,750
7	\$82,050
8인 이상	\$87,300

린다. 내용은 스크레딧 관리(김민식 이사), △부동산(박현숙), △홈 인스펙션(리처드 박), △은행운전자(엘렌 김), △타이틀(주진희) 등으로 진행된다. 재수강자는 오후 2시까지. >문의: 703-256-4970 >주소: 7619 Little River Turnpike, Suite 1000, Annandale, VA.

유승림 기자

'미 선거 한눈에' 한글 홍보책자 발간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

오는 11월 미국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한인들의 선거참여 방법을 쉽게 설명함으로써 투표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한글판 안내책자가 발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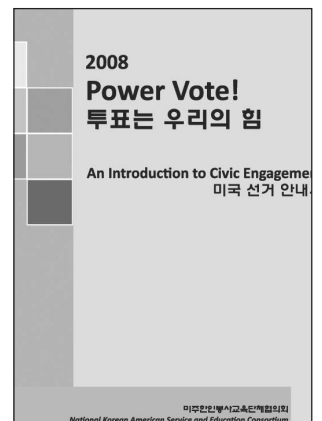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이하 협의회)는 16일 '2008년 선거 참여안내(Power Vote 2008: An Introduction to Civic Engagement)'라는 제목의 책자(사진)를 발간했다고 밝히고 적극적인 한인의 투표참여 홍보에 나섰다.

이 책자는 미국 선거제도 소개와

함께, 입법과정, 미국 선거법의 역사, 각종 투표방법, 중요한 선거관련 일차, 유권자 등록방법 등을 소개하고 있다.

협의회는 미주 전체 한인 중 78%가 미국이 아닌 곳에서 태어났으며 또 76%가 가정에서 한국어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글판 안내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은숙 협의회 수석 디렉터는 "이번 선거에 많은 한인들이 참여함으로써 미국 정치계가 한인사회를 무시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우리 한인사회가 무엇을 원하는지 미국 정치인들에게 확실히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안내책자는 인터넷(<http://nakasec.org/blog/wp-content/uploads/2008/09/nakasec-power-vote.pdf>)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홍일범 기자

사업의 성공은 은행과의 관계입니다. 위스퍼스 은행이 함께 합니다.

- 상업용 건물용자
- Refinancing (각종 재용자)
- 비즈니스 단 · 장기용자
- 각종 투자 및 IRA 상품
- SBA Loan
- 정기 예금 및 저축 상품

「 176년 역사, 30억 달러 이상의 자산 」



아래의 세 Location에서는 특별히 한인 직원들이 상주하여 여러분들을 도와드립니다.

Delaware Main Office
500 Delaware Ave.
Wilmington, DE 19801
Tel. 302-571-7256
Fax. 302-571-6835
Paul Hyon(폴 현)

Annandale Office
7010 Little River Tnpk., #330
Annandale, VA 22003
Tel. 703-752-1401
Fax. 703-752-1402
김선희/정윤진/Joanna

Blue Bell Office
721 Sikppack Pike.#101
Blue Bell, PA 19422
Tel. 267-708-7890
Fax. 267-708-7893
곽대영/손선영



© 2008 Wilmington Savings Fund Society, FSB | Member FDIC
www.wsfsbank.com